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부적응

강 경 아\* · 류 점 숙\*\* · 신 효 식\*\*

나주중학교\* · 서강정보대학 비서정보학과\*\*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

Kang, Kyeong-A\* · Ryoo, Jom-Sook\*\* · Shin, Hyo-Shick\*\*\*

*Na-Ju Middle School\**

*Dept. of Secretary & Information, Seokang Information Colleg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 The subjects were 448 middle school students in Kwangju.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in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 Physical abuse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of the child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but emotional abuse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job of the father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And, neglect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 of the father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Social withdrawal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of the child, family income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but hyperactivity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of the child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Agression and retreat were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of the child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Obsessive-compulsion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2.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abuse and maladjustment.

3. The finding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neglect, physical abuse, family income, gender of child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social with-

drawal. Neglect,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physical abuse, gender of child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hyperactivity. Neglect, emotional abuse,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aggression. Gender of the child, emotional abuse,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retreat. And, unreasonable rearing behavior of the parents, neglect, and physical abuse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obsessive-compulsion.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적고,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을 중요한 훈육방법으로 생각하였고, 부모의 학대 행동은 자녀가 대부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체벌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체벌을 통하여 자녀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체벌이 대체로 용인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숨겨진 자녀학대(hidden child abuse)가 많이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 취업 여성의 증가, 이혼과 별거 등에 의한 가족 결손의 증가 등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족 기능의 약화를 보완하는 가족 지원체계의 취약성은 자녀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는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자녀에게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켜서, 자녀 개인의 복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곽영숙, 홍강의, 1986 ; 권자영, 1991),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었을 때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지어 Green(1985)은 지속적인 학대의 경험은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의 손실, 파괴적인 행동, 학교적응의 어려움 등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였으며, 권자영

(1991)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는 사회적 위축, 과잉 활동 등의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대받는 자녀는 자신의 여러 능력이 박탈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장애에 부딪치며, 이들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학대는 자녀에게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며,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초점도 이들 하위영역간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연구자(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 Wodarski, Kutz, Gaudin, & Howing, 1990)들은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신체적 학대는 공격적인 특성을, 방임은 정서적 위축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의 하위 영역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차원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부모의 자녀 학대 연구가 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춘기에 진입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계층면의 발달적인 변화에 그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 처벌자의 의도를 왜곡해서 지각할 수 있으며, 일탈행동과 같은 비건설적인 방식으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의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는 유아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학대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의 자녀 학대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봄, 동시에 부적응 현상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의 특성을 밝혀보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 학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청소년인 중학생 자녀에게는 학대로 인한 부적응을 완화시켜 건전한 발달과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의 자녀 학대

부모의 자녀 학대는 고려해야 할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대의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Kempe와 Helfer(1962)는 피학대아 중후군에서 자녀 학대란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자녀로 그 상처가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손상이라고 하였다(이종복, 이배근, 1997). Fontana(1971)에 의하면 자녀 학대는 신체적 구타 외에 정서적 박탈, 방임, 영양 부족, 물질적 요구의 결손, 언어적 학대 등을 모두 포함시켜 부적절한 자녀 양육으로 보았다(이종복, 이배근, 1997).

일반적으로 자녀 학대는 협의와 광의로 정의되는데, 협의의 자녀 학대는 부모나 양육자의 고의에

의해 주로 신체적인 손상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협의의 자녀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동일시하고 있다(Gil, 1981). 반면, 광의의 자녀 학대는 부적절한 환경적 조건에 의해 자녀가 발달적 지체와 손상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자녀학대를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부모나 양육자의 직접적인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다.

학대 유형은 연구자마다 각기 상이하게 설명하나, 주로 자녀 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네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구타(battering)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부모나 양육자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의도적, 고의적인 공격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가해하는 등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수반되어 발생하는데,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 위협하고 욕하는 것 등이다.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자녀에 대한 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노출에서부터 근친상간,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사회적 금기로 인해 파악하기가 가장 어려운 학대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방임(neglect)은 부모나 양육자가 보호나 감독의 결여로 영양부족, 지도감독의 소홀, 부적절한 위생관리, 교육적인 무관심 등이 일어났을 때를 말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 유형 중에서 성적 학대의 빈도가 낮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성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학대 연구를 토대로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관련 변인으로 성별, 형제수, 자녀의 신체적 결함이나 건강 여부, 또래 관계, 자녀의 연령 등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받으며(김광일, 고복자, 1987 : 이소희, 1989 : Straus & Gelles, 1979), 연령이 낮을수록(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1991) 학대를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으며(신영화, 1986),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자녀일수록 학대를 많이 받고(김혜영, 1990),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김정준, 1986).

둘째,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부모 자신의 학대 경험, 부모의 양육행동, 생활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연령은 낮는데, 20-30세에 집중되어 있으며(이경희, 이소희, 1995) 반면에, 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높았고, 모의 연령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신영화, 1986).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주영희, 1984 : 신영화, 1986), 부가 실직하거나 사회적 승인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경희, 이소희, 1995) 자녀학대가 높았다. 빈곤선 및 그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부모일수록 학대를 더 많이 하였다(Picton & Boss, 1981).

부모의 양육행동도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적거나 상호 지지적이지 못할 때, 또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일 때 학대의 위험이 높으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일관성이 없는 혼욕을 하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Burgess & Conger, 1978)고 하였다. 이소희(1989)는 학대부모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통제적, 안일한 행동을 취할수록 자녀를 학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자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특히, 자녀의 성, 부모의 관련 변인인 소득, 직업, 학력,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자녀의 부적응

부적응은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고, 사회문화적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Kauffman(1977)에 의하면 자녀가 그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원식(1977)은 욕구충족이 방해받을 경우 개체가 환경에 따라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융통성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이

상반응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부적응이라고 하였다(이경주, 1997 재인용).

일반적으로 부적응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들로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가는 가운데 여러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이라고 하겠다.

부적응 유형에 대하여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CBCL자료와 오경자, 이혜련(1990)의 분류에 기초를 두고 중학생에게 보편적으로 보이는 부적응을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의 5개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과잉활동성은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한다. 공격성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육체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악의를 품는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욕구 내지 경향을 말한다. 사회적 위축은 어떤 힘에 눌리거나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이 쏠아들고 피하지 못하는 상태로 몸을 도사리며 남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퇴행성은 어떤 장애로 욕구불만에 빠져 현재 도달해 있는 발달 수준 이전의 발달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강박성은 사소한 생각이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생각나는 것으로 융통성이 없고 면밀하면서도 어떤 관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개된 부적응 연구를 고찰하여 보면,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아동까지 포함시켜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겠다.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격성, 과잉활동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으나, 불안, 우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홍강의, 홍경자, 1985; Colten, Gore, & Aseltine, 1991). Elder, Liker와 Cross(1984)에 의하면, 가정의 격심한 경제적 변화는 자녀의 기질과 행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다루기 힘든 성미나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이경주, 1997에서 재인용). 이와 맥락을 같이 한 Achenbach(1978)도 상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낮은 부적응 점수를 보였고, 하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홍강의, 홍경

자(1985)는 상류층 자녀들이 정서적-신경증적인 내적 부적응을 보인 반면에, 하류층으로 갈수록 외적 부적응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미현, 유안진(1996)은 모의 학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적응이 낮았다고 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과잉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이 낮았으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과잉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이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체벌의 사용이 빈번하며(Steinberg, 1987), 통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김경숙, 1993), 부적응 점수가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Mussen(1979)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대적이며 구속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적이며 사회적인 위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봉임, 1992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의 성, 소득, 부모의 학력, 양육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 영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적응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자녀 학대와 부적응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를 보면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김광일, 고복자, 1987; 권자영, 1991), Green(1978)에 의하면 공격성은 때에 따라 밖으로 또는 내면으로 향하는데 공격성의 한 형태로서 자기 학대 증상 역시 학대받은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Brenner(1984)에 의하면 학대받은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외되고 자기 파괴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위축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주장하면서 학대유형별로 정서적 부적응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자녀는 공격적, 충동적이고 과잉활동성을 보이며, 정서적 학대는 분노, 적대감을 갖으며 위축되어 있다. 방임되어 있는 자녀 역시 과잉활동성을 보이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공격적, 파괴적이 되기 쉽다고 하

였다.

한편, 학대받은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청소년은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부모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는 가출행동은 부모의 학대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주영희, 1984)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학대와 부적응은 정적인 관련성이 높으며,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 영역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아동을 중심으로 특성을 밝히고 있고, 학대 유형에 따른 부적응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결과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와 이들의 부적응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4개 중학교 남녀 1, 2학년 4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성은 남학생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연령에 있어서 부모 모두 40-44세인 경우(45.5%, 50.2%)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학력을 보면 모두 고졸(56.0%, 61.4%)이 많았으며 소득은 100-199만원(61%)인 집단이 많았다. 부의 직업은 피고용 기능공(27.2%)과 사무직(26.1%)이 많았으며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59.6%)와 취업주부(40.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 측정도구

자녀학대 도구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 척도, 권자영(1991), 김혜영(1990), 이소희(1989), 최윤라(1988)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도구는 신체적 학대(7문항), 정서적 학대(9문항), 방임(10문항)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그 빈도에 따라 1년에 0-1회, 1년에 2-6회, 한달에 1-3회, 1주일에 1-3회에 답하도록 4점 척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48)

변인	구분	빈도(%)
성	남	237(52.9)
	여	211(47.1)
부의 연령	39세 이하	29(6.5)
	40-44세	204(45.5)
	45-49세	162(36.2)
	50세 이상	53(11.8)
모의 연령	39세 이하	127(28.3)
	40-44세	225(50.2)
	45-49세	75(16.7)
	50세 이상	21(4.7)
부의 학력	중졸이하	74(16.5)
	고졸	251(56.0)
	대졸이상	123(27.5)
모의 학력	중졸이하	129(28.8)
	고졸	275(61.4)
	대졸이상	44(9.8)
소득	99만원 이하	53(11.8)
	100-149만원	136(30.4)
	150-199만원	137(30.6)
	200만원 이상	122(27.2)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	24(5.4)
	피고용 기능공	122(27.2)
	자영 상공업	99(22.1)
	사무직	117(26.1)
	관리직, 전문직	86(19.2)
모의 직업	무	267(59.6)
	유	181(40.4)

도화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값이 신체적 학대 .75, 정서적 학대 .85, 방임 .72로 나타났다.

부적응 척도는 Achenbach(1978)의 아동행동 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과 김봉임(1992), 김명숙(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부적응을 5개 하위 영역 즉,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강박성, 퇴행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5개의 문항으로 총 2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매우 그렇다(3점)에 답하도록 3점 척도화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값이 사회적 위축 .66, 과잉활동성 .59, 공격성 .65, 강박성 .62, 퇴행성 .55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자녀의 성, 소득, 부와 모의 학력, 부와 모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행동을 포함시켰다. 소득은 99만원 이하,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 이상의 네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부와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의 직업은 무직, 단순 노무직, 피고용 기능공, 자영 상공업, 사무직, 관리 전문직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이종승(1982), 김봉임(1992)의 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부모의 자녀 학대는 양육행동이 부정적이며 일관성이 없을 때 표출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양육행동을 단일한 척도로 하여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자녀를 미숙한 존재, 또는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과잉보호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요구하며 일관성이 없는 양육행동을 말한다. 특히 젊은 부모나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아동발달의 특성에 대한 지식, 이해가 부족하여 비합리적 양육행동을 갖기 쉽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값이 .7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1997년 7월 15일-7월 22일 사이에 중학생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44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 학대와 부적응 질문지는 학급 담임의 협조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평정방법을 설명해주고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으며, 응답시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은 SAS/PC+를 이용하여 Cronbach의 계수, t검증, 변량분석, Duncan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자녀 학대 차이

(표 2)와 같이 신체적 학대는 성( $p < .01$ ), 비합리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자녀 학대 차이

변인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입		전체	
		M(SD)	D	M(SD)	D	M(SD)	D	M(SD)	D
성	남	7.86(1.73)	a	10.75(3.53)		11.38(2.39)		29.99(6.03)	
	여	7.46(1.34)	b	10.44(3.10)		11.23(1.85)		29.13(4.84)	
	t값	2.73**		0.97		0.72		1.65	
부의 학력	중졸이하	8.01(2.18)		10.47(3.06)		11.84(3.06)	a	30.32(7.09)	
	고졸	7.66(1.48)		10.45(2.78)		11.35(2.03)	ab	29.46(4.69)	
	대졸이상	7.61(1.40)		11.09(4.46)		10.94(1.82)	b	29.64(6.31)	
	F값	1.72		1.57		3.94*		0.67	
모의 학력	중졸이하	7.71(1.80)		10.32(2.67)		11.54(2.63)		29.56(5.87)	
	고졸	7.68(1.50)		10.72(3.68)		11.30(2.07)		29.71(5.61)	
	대졸이상	7.82(1.60)		10.98(3.21)		10.80(1.36)		29.59(4.90)	
	F값	0.14		0.89		1.89		0.04	
소득	99만원이하	7.67(1.29)		10.42(2.72)		11.87(2.38)		29.98(5.43)	
	100-149만원	7.53(1.15)		10.24(2.47)		11.27(2.20)		29.04(4.49)	
	150-199만원	7.83(1.91)		10.82(3.59)		11.31(2.24)		29.96(6.20)	
	200만원이상	7.76(1.75)		10.95(4.15)		11.15(2.05)		29.86(6.11)	
	F값	0.89		1.18		1.38		0.80	
부의 직업	무직/단순노무직	8.25(2.29)		10.58(3.71)	ab	11.63(2.22)		30.46(6.67)	
	피고용기능공	7.53(1.46)		10.13(2.36)	b	11.32(2.41)		28.98(5.26)	
	자영상공업	7.69(1.74)		10.08(2.11)	b	11.55(2.11)		29.31(4.58)	
	사무직	7.78(1.54)		11.03(3.46)	ab	10.93(2.07)		29.74(5.54)	
	관리전문직	7.72(1.46)		11.45(5.00)	a	11.50(2.12)		30.67(6.78)	
	F값	1.15		3.07*		1.44		1.38	
모의 직업	무	7.60(1.34)		10.61(3.29)		11.22(2.03)		29.43(4.99)	
	유	7.78(1.86)		10.55(3.15)		11.51(2.43)		29.84(5.93)	
	t값	-1.09		0.17		-1.32		-0.76	
비합리적 양육행동	상	8.29(2.11)	a	12.06(4.39)	a	12.22(2.43)	a	32.61(7.07)	a
	중	7.62(1.51)	b	10.49(3.19)	b	11.05(2.07)	b	29.16(5.13)	b
	하	7.24(0.72)	c	9.39(1.28)	c	10.83(1.87)	c	27.46(2.71)	c
	F값	14.57***		21.49***		16.12***		30.87***	

상 > M + SD/2, M + SD/2 ≥ 중 ≥ M - SD/2, 하 > M - SD/2

\* p<.05, \*\* p<.01, \*\*\* p<.001

적 양육행동(p<.001)에 따라, 정서적 학대는 부의 직업(p<.05), 비합리적 양육행동(p<.001)에 따라, 방입은 부의 학력(p<.05), 비합리적 양육행동(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신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는 부의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에 높았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부적응 차이

변인	구분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		진 체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	남	8.61(2.01)	a	9.44(1.89)	a	7.92(1.80)	a	8.60(1.95)	b	9.31(2.20)		43.87(7.08)	
	여	8.13(1.78)	b	8.95(1.72)	b	7.54(1.90)	b	9.32(1.97)	a	9.30(1.97)		43.25(6.74)	
	t값	2.63**		2.81**		2.12*		-3.75***		0.03		0.94	
부의 학력	중졸이하	8.61(1.84)		9.46(1.90)		7.78(1.80)		8.85(1.78)		9.53(2.06)		44.18(6.85)	
	고졸	8.54(1.96)		9.27(1.85)		7.85(1.89)		8.96(2.09)		9.30(2.10)		43.92(7.11)	
	대졸이상	8.07(1.92)		9.10(1.80)		7.62(1.80)		8.73(1.91)		9.20(2.17)		42.72(6.11)	
	F값	2.85		0.91		0.64		0.55		0.60		1.51	
모의 학력	중졸이하	8.40(1.72)		9.23(1.86)		7.68(1.77)		8.73(1.80)		9.27(2.16)		43.27(6.78)	
	고졸	8.49(1.96)		9.28(1.85)		7.85(1.93)		9.02(2.07)		9.37(2.12)		44.02(6.98)	
	대졸이상	8.09(2.32)		9.11(1.79)		7.59(1.51)		8.45(1.96)		9.02(1.92)		42.27(7.13)	
	F값	0.83		0.17		0.60		2.06		0.56		1.44	
소득	99만원이하	9.06(2.15)	a	9.32(1.71)		7.72(1.69)		8.98(2.14)		9.23(2.06)		44.30(6.97)	
	100-149만원	8.40(1.77)	ab	9.24(1.80)		7.67(1.78)		8.68(1.76)		9.30(2.06)		43.27(6.38)	
	150-199만원	8.48(1.97)	ab	9.18(1.88)		7.74(2.00)		9.15(2.11)		9.37(2.22)		43.93(7.60)	
	F값	3.07*		0.13		0.54		1.55		0.08		0.41	
부의 직업	무/단순노무직	8.38(1.76)		9.08(1.77)		7.79(1.86)		8.50(2.06)		8.88(2.17)		42.63(6.74)	
	피고용기능공	8.63(1.96)		9.21(1.92)		7.66(1.84)		8.84(1.92)		9.27(2.11)		43.62(7.39)	
	자영업공업	8.19(2.02)		9.28(2.02)		7.83(1.96)		8.76(2.14)		9.14(2.19)		43.15(7.36)	
	F값	0.87		0.12		0.15		0.56		1.18		0.42	
모의 직업	무	8.33(1.91)		9.24(1.93)		7.69(1.85)		8.81(2.01)		9.20(2.05)		43.26(6.92)	
	유	8.59(2.00)		9.30(1.77)		7.83(1.85)		8.95(1.92)		9.39(2.18)		44.06(7.00)	
	t값	-1.33		-0.34		-0.79		-0.73		-0.87		-1.17	
비합리적 양육행동	상	8.86(1.80)	a	9.74(1.88)	a	8.26(1.80)	a	9.37(2.02)	a	9.98(2.07)	a	46.20(6.15)	a
	중	8.37(1.97)	b	9.29(1.72)	b	7.80(1.81)	b	8.80(1.98)	b	9.37(2.09)	b	43.61(6.91)	b
	하	8.07(1.94)	b	8.69(1.86)	c	7.24(1.84)	c	8.50(1.89)	b	8.51(1.93)	c	41.01(6.83)	c
	F값	5.36**		10.51***		9.68***		6.22**		16.12***		18.53***	

\* p<.05, \*\* p<.01, \*\*\*p<.001



고,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학대가 높았다. 방임은 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방임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학대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많다고 한 결과(김광일, 고복자, 1987 ; 이소희, 1990)와 일치하고 있으며, 부의 직업이 관리, 전문직인 경우에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집단이 신체적 체벌보다는 언어, 정서적으로 혼계 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 학대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일때 학대의 위협이 높고, 일관성이 없는 혼욕을 하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다고 한 Burgess와 Conger(1978)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의 부적응 차이

〈표 3〉과 같이 사회적 위축은 성( $p < .01$ ), 소득( $p < .05$ ), 비합리적 양육행동( $p < .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잉활동성은 성( $p < .01$ ), 비합리적 양육행동( $p < .001$ )에 따라, 공격성은 성( $p < .05$ ), 비합리적 양육행동(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퇴행성은 성( $p < .001$ ), 비합리적 양육행동( $p < .01$ )에 따라, 강박성은 비합리적 양육행동( $p < .001$ )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위축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고,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위축이 높았다. 과잉활동성 역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고,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과잉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성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고,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퇴행성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고,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퇴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강박성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강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남학생의 경우에 여학생보다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퇴행성이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부적응에는 성차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 가정에서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에 따라 사회적 적응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Hurlock(1987)의 결과와 일치한다.

2.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간의 관계

〈표 4〉와 같이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 $p < .01 - p < .001$ )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별로 보면, 방임과 공격성( $r = .32$ )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다음은 정서적 학대와 공격성( $r = .26$ ), 방임과 과잉활동성( $r = .25$ ), 신체적 학대와 공격성( $r = .23$ ), 방임과 사회적 위축( $r = .23$ ), 신체적 학대와 과잉활동성( $r = .21$ ), 정서적 학대와 퇴행성( $r = .20$ ), 정서적 학대와 과잉활동성( $r = .20$ ), 방임과 강박성( $r = .20$ ), 신체적 학대와 사회적 위축( $r = .19$ ), 신체적 학대와 강박성( $r = .19$ ), 신체적 학대와 퇴행성( $r = .16$ ), 정서적 학대와 강박성( $r = .16$ ), 방임과 퇴행성( $r = .14$ ), 정서적 학대와 사회적 위축( $r = .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간의 상관관계

학대 \ 부적응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	전체
신체적 학대	.19***	.21***	.23***	.16***	.19***	.27***
정서적 학대	.13**	.20***	.26***	.20***	.16***	.27***
방임	.23***	.25***	.32***	.14**	.20***	.31***
전체	.22**	.28***	.35***	.22***	.23***	.36***

\*\*  $p < .01$       \*\*\*  $p < .001$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공격성간의 상관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영양섭취에 관심이 부족하고, 부적절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교육적으로 무관심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자녀의 적응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 학대의 상대적인 영향력

자녀의 부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모의 자녀 학대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먼저 성별은 가변수(남=0, 여=1)로 하여 재범주하였으며,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87-2.08),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사회적 위축은 방임, 신체적 학대, 소득, 성별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9%가 설명이 되었다. 방임, 신체적 학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인 경우 사회적 위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잉활동성은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신체적 학대, 성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에 의해 11%가 설명이 되었다. 방임, 비합리적 양육행동, 신체적 학대가 높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인 경우 과잉활동성이 높았다. 공격성은 방임, 정서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15%가 설명이 되었다. 방임, 정서적 학대,

〈표 5〉자녀의 부적응에 대한 중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F	R <sup>2</sup>
사회적 위축	방 임	.15	.17***	8.83***	.09
	신체적 학대	.14	.11**		
	소 득	-.20	-.10*		
	성	-.35	-.09*		
	비합리적 양육행동	.18	.07		
과잉활동성	방 임	.15	.18***	13.32***	.11
	비합리적 양육행동	.32	.13***		
	신체적 학대	.13	.11*		
	성	-.36	-.10*		
공격성	방 임	.21	.25***	18.74***	.15
	정서적 학대	.09	.16***		
	비합리적 양육행동	.22	.09*		
	성	-.28	-.07		
퇴행성	성	.84	.21***	11.69***	.10
	정서적 학대	.08	.13***		
	비합리적 양육행동	.32	.12**		
	신체적 학대	.11	.08		
강박성	비합리적 양육행동	.57	.20***	15.58***	.10
	방 임	.12	.12*		
	신체적 학대	.14	.10*		

\* p<.05, \*\* p<.01, \*\*\* p<.001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퇴행성은 성, 정서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서 10%를 설명해주고 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서적 학대,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퇴행성이 높게 나타났다. 강박성은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 신체적 학대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10%가 설명이 되었다. 비합리적 양육행동, 방임, 신체적 학대가 높을수록 강박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녀 학대 유형에 따라 부적응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등에서, 소득은 사회적 위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은 과잉활동성, 공격성, 퇴행성, 강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학대는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퇴행성, 강박성에서, 정서적 학대는 공격성, 퇴행성에서, 방임은 사회적 위축, 과잉활동성, 공격성, 강박성 등의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학대 유형은 자녀의 부적응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합리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과업을 인식하고 부모 역할, 부모로서의 양육기술, 부모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부모역할의 비합리성 문제로 생기는 자녀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심신의 손상을 받은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학대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서비스 체

계가 활성화된다면 학대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부모의 학대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방임과 공격성이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자녀의 적응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 학대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변인들의 설명력이 9-1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킨 연구가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보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국한시켜 분석하였으므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질문지법을 통하여 학대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학대를 빈도에 의해서만 측정을 하였으므로 빈도와 강도의 가중치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진행시키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의 지역 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시켜 연구대상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질문지법을 통한 조사이외에 면접, 관찰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 학대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사회환경 변인 등을 포함시킨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학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시켜 분석하였으며, 자녀의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모의 학대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부모의 양육방향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이들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영숙, 홍강의(1986).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5, 37-52.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경숙(1993). 유아의 행동문제와 어머니 양육태도.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일, 고복자(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률-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봉임(1992). 양육태도, 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연구-초, 중, 고생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가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 증후군 연구 I: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자료의 분석. 만국심리학회지, 9(1), 33-55.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 박사 논문.
- 이경희, 이소희(1995).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 이소희(1989).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이종복, 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 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최윤라(1988).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1).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보고서, 1-4.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 부모 설문에 의한 역학적 조사. 정신의학보, 9(2), 48-63.
- Achenbach, T.M.(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3), 478-488.
- Achenbach, T.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 Brenner, A.(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Lexington, Mass : Health and Company.
- Burgess, R.L. & Conger, R.P.(1978). Family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ed and normal families. *Child Development*, 49, 1163-1173.
- Colten, M.E., Gore, S., & Aseltine, R.(1991). The patterning of distress and disorder in a community sample of high school aged youth, In M.E. Colten & S. Gore(Eds.). *Adolescent stress : Causes and consequences*, 157-180, N.Y. : Aldine de Gruyter.
- Gil, D.G. (1981). Unraveling child abuse, in J.V. Cook & R.T. Bowles(ed.). *Child abuse-commissions and omissions*, Toronto : Butterworth Company. 119-128.
- Green, A.(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Shaffer, D., Ehrhardt, A.A., & Greenhill, L.L. ed..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New York, The Free Press.
-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T.(1984). A multimode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 Kauffman, J.M.(1977).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Columbus Ohio : Charles, E. Merrill.
- Picton, C. & Boss, P.(1981). *Child Welfare in Australia : An Introduction Sydney : Harcourt Brace Iovanich Group. Pty Limited.*

- Steinberg, L.(1987). Familial factors in delinquency :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35-268.
-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1, 75-88.
- Straus, M.A. & Gelles, R.J.(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 The Free Press. 549-581.
- Wodarski, J.S., Kutz, P.D., Gaudin, J.M., & Howing, P. T.(1990). Maltreat and the school-age child : Major academic, socioemotional, and adaptive outcomes. *Social Work*, 35, 506-513.